

'신구간' 풍속의 축제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

윤용택**

<차례>

- I. 들어가는 말
- II. 신구간 풍속의 민속학적 의미
- III. 신구간 풍속의 기후 환경적 의미
- IV. 신구간 풍속의 축제화 가능성
- V. 신구간 축제의 의의와 현실화 방안
 - 1. 원초적 제의성과 전통문화의 보존
 - 2. 공동체 의식 함양과 관광 활성화
 - 3. 경제 활성화와 환경보전
- VI. 맺는말

국문요약

제주도의 민간에는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까지를 '신구간(新舊間)'이라 하여, 이 기간에만 변소를 고치고, 집을 수리하고, 이사를 하는 풍속이 있다. 이러한 신구간 풍속이 언제부터 행해졌는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지만 오늘날까지도 상당수의 제주인들이 이 풍속을 따르고 있다.

신구간 풍속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신구간은 이사철로 굳어져서 임대료 폭등, 쓰레기 대란, 공공기관의 민원폭주 등의 부작용을 낳았고, 관에서는 신구간을 제주도에서 없애야 할 대표적 악습, 폐습, 미신 등으로 간주하였다.

문화적 측면에 본다면, 신구간 풍속은 없애야 할 부끄러운 유산이 아니라 새

* 본 논문은 2005년도 제주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

롭게 재해석되어야 할 문화적 자산이다. 신화적 세계에 살면서 신이 없는 기간을 설정했다는 것은 대단한 발상이었다. 문화산업사회인 오늘날 신구간 풍속을 새롭게 의미 변형하여 축제로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옛 제주사람들이 신구간에 신화적 세계의 금기를 깨었듯이, 오늘날 우리는 신구간에 축제를 펼치면서 사회적 금기를 깰 수 있다. 따라서 신구간에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인간 본연의 욕구를 분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축제 프로그램을 기획해낸다면 신구간 축제의 성공 가능성은 높다.

아울러 신구간 축제기간 동안에 알뜰장터를 열어 그동안 사용하지 않고 집안 구석에 쌓아 두었던 물품들을 찾아내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교환한다면, 환경도 살리고 지역민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상인들은 축제기간 동안에 창고에 쌓여 있던 유행이 지난 제품들을 매장에 내놓아서 대폭 할인 판매하게 된다면 재고도 줄이고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신구간의 축제화를 통하여 정신적, 물질적 차원에서 묵은 것을 털어내고 홀가분하게 새롭게 시작되는 봄(새철)을 맞는 것은 신구간 풍속의 본래적 의미와도 부합하는 것이다.

주제어 : 신구간, 이사철, 풍속, 관광, 축제

1. 들어가는 말

제주도의 민간에는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까지를 ‘신구간(新舊間)’이라 하여, 이 기간에만 변소를 고치고, 집을 수리하고, 이사를 하는 풍속이 있다. 이러한 신구간 풍속이 언제부터 행해졌는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지만 오늘날까지도 상당수의 제주인들이 이 풍속을 따르고 있다.

신구간이 이사철로 고착된 이후로 신구간이 되면 육지에서 이삿짐센터들이 제주에 원정을 정도로 바쁘다. 그리고 신구간에 이사를 하거나

집을 수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가구점, 가전제품 대리점, 커튼가게, 인테리어가게 등도 신구간이 대목이 된다. 뿐만 아니라 제주에서는 이 사철과 관계없는 매장이거나 가게에서도 신구간이 되면 바겐세일을 한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침체됐던 경기도 신구간에 반짝 살아나는 신구간 특수(特需)가 있다.

그러나 지난 50여 년 동안(1953~2006)의 제주지역 신문에서 신구간과 관련된 보도를 보면, 신구간 풍속은 부정적 측면이 많았다. 주택보급률이 낮던 1950, 60년대에 집 없는 서민들은 턱없이 치솟는 사글세 때문에 셋방을 구하느라 고통이 말이 아니었고, 경제적 여유가 생긴 70년대부터는 이삿집이 늘어나 이사차량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이사비용이 많아지게 되었으며, 소비사회로 접어든 90년대 이후부터는 한꺼번에 쏟아지는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게 되었다. 그리고 정보화 시대인 오늘날에는 통신회사와 방송국에서는 전화, 인터넷, 유선방송 등을 다시 설치하느라 비상근무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와 법원등기소 등에서는 전입신고와 전세등기를 하느라 민원인들로 장사진을 이룬다.

따라서 행정관청에서는 신구간 풍속이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판단하여, 신구간 풍속을 악습으로 규정하여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신구간은 더욱더 이사철로 굳어졌고, 주거형태가 일반주택에서 아파트로 바뀌어서도 한동안 그 입주 시기를 신구간에 맞추어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 육지와의 전출입 인구가 많아지고,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져서 이사는 반드시 신구간에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깨어지게 되면서, 이사철로서의 신구간도 점차 퇴색되고 있다.

지금은 모든 것을 신의 조화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다. 그리고 더 이상 농경사회가 아니고, 농촌에서도 농한기가 따로 없으며,

방역이 철저하고 위생상태가 좋아져 세균감염으로 인한 질병의 위험도 사라져서 동티(뒤탈)가 날 걱정을 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도 제주사람들이 여전히 신구간 풍속을 지키는 가장 큰 이유는, 오랫동안 신구간 풍속을 지켜오는 과정에서 신구간이 임대차의 회계기간으로 정착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속학적 측면에서 신구간 풍속은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풍속이다. 따라서 근대화 과정에서 신구간 풍속이 비록 부정적인 측면이 두드러졌다 할지라도, 독특한 문화가 자산이 되는 문화산업사회에서는 신구간 풍속을 하나의 문화적 자산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하지만 농경사회에서 비롯된 신구간 풍속이 문화산업사회에도 지속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의미 변형이 필요하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신들 대신에 수많은 규범과 틀에 구속되어 살고 있고, 가끔 그것으로부터의 일탈을 꿈꾼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이 발달한 덕분에 일상생활에서 계절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살아가지만, 그럴수록 일 년에 한번쯤은 묵은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신들이 없는 기간으로 여겨온 신구간을 현대인들을 구속하고 있는 규범과 틀로부터 일탈을 허용할 수 있는 기간으로 삼을 수 있다. 지상을 다스리던 신들이 하늘로 올라가 지상에 신이 없는 신구간은 새로운 질서(cosmos)가 형성되기 이전의 혼돈(chaos)의 시기이다. 따라서 신구간을 축제의 '놀이판' 내지는 '난장판'을 벌이기에 적기이다.

뿐만 아니라 묵은 것을 털어내고 새것을 준비하는 기간인 신구간은 집안과 매장(賣場) 구석구석을 정리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신구간을 개인들은 집안 구석에서 잠자고 있던 물품을 꺼내어 무료로 기증하거나 교환하는 기간으로 삼고, 상인들은 일 년 동안 안 팔려서 창고에 쌓아

두었던 상품들을 문자 그대로 재고(在庫)정리하는 기간으로 삼을 수 있다. 모든 것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가장 귀하게 된다. 우리는 그동안 제자리를 찾지 못해 쓰레기나 폐기물로 될 물품들을 그들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함으로써 귀한 자원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럴 경우에 그동안 쓰레기로 넘쳐나는 기간이었던 신구간은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기간으로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신구간 풍속의 민속학적, 기후환경적 의미를 평가해보고, 신구간 풍속이 단순히 농경사회에서의 풍속을 넘어서 문화산업사회에도 걸맞는 새로운 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II. 신구간 풍속의 민속학적 의미

제주도는 신들의 고향이라 불릴 만큼 많은 신들이 존재하며, 옛 제주 사람들은 신들에 구속되어 살았다. 하지만 신들의 고향에도 신들이 없는 기간이 있다. 제주사람들은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¹⁾, 즉 1월 25일부터 2월 1일 사이에는 신들이 지난 한 해의 일들을 옥황상제에게 보고하고 임무교대를 위해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상에는 신이 없다고 믿어 왔다. 그래서 일 년 내내 신에 구속되어 살던 제주사람들은 신구간에 평소에 신이 두려워서 못하던 일들을 하였던 것이다.

신구간과 관련된 최초의 논문²⁾을 썼던 민속연구가 진성기 선생은 신구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1) 24절기로서 대한(大寒)은 1월 20일 또는 21일, 입춘(立春)은 2월 4일 또는 5일이 된다. 여기서는 편의상 대한을 1월 20일, 입춘을 2월 4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진성기, 「新舊間과 民俗信仰」, 『국어국문학』 34, 35합병호(국어국문학회, 1967).

제주도의 민간에 있어서 이사나 집수리 따위를 비롯한 손질은 언제나 이 '신구간'이라는 기간에만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신구간'은 대한(大寒) 후 5일에서 입춘(立春) 전 3일간으로, 이 기간은 보통 일주일 정도가 된다. 이 신구간은 보통 신구세관(新舊歲官)이 교승(交承)하는 과도 기간을 뜻한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대체로 제반 신격(神格)이 천상에 올라가서 지상에는 신령이 없는 것으로 관념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기에 이 기간에는 이사나 집수리를 비롯한 평소에 꺼려했던 일들을 손보아도 아무런 탈이 없어 무난하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평상시에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다가는 동티가 나서, 그 집에는 큰 가환(家患)이 닥치고 액운(厄運)을 면치 못하게 된다고 하니, 날이 갈수록 일상생활에서는 미신으로만 돌려 버리던 이들까지도 이 속신(俗信)에만은 속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생활 주거지를 중심으로 늘 우리의 생활과 관계있다고 믿는 신으로서의 대개 본향(本鄉) 토주관(土主官) 한집을 비롯해서 성주신, 조왕신, 문전신, 토신, 신장(오방신장), 마두직이, 올래마두, 정살직이, 칩간임신, 나무벌목신, 석상신, 칠성신(칠성할망), 주먹지신(정주먹신) 따위를 지복하는데, 이는 일체의 지상신으로서 심방[巫覡]들은 지신(地神)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집 밖의 신들로서는 '영감', '개로옥소또', '참봉'이니 혹은 배에 올랐다고 해서 '배옥선양'이니, 큰 배에 올랐다는 데서 '상선양'으로 말하는 '야채'와 '제석할망(자청비神으로서 일명 중세경이라 함)', '상세경(문두령神)', '하세경(정이 웃인 정수남神)', '백중할으방(農畜神)', '영등할으방', '산신백관', '요왕(동의 청용신, 서의 백용신, 남의 적용신, 북의 흑용신, 중앙 요왕황제 수리태조국)', '거복소제(요왕의 차사神임)' 등을 비롯해서 제주도 1만 8천 신격(神格)의 이름은 다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다.

아무튼 사람들은 이 신구간이 아닌 다른 시기에 조왕, 물류[門戶], 통시(변소), 쇠막(외양간), 집중창 등을 고치거나, 올타리 안에서 흙을 파고, 올담을 고치고, 나무를 자르는 따위의 일을 하면 동티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티로 인해 잘 아프게 되는 증상으로는 대개 다리, 눈, 머리, 목, 가슴 등이 아프거나, 전신불구 따위로 그 아픈 증상이 한결같지 않게 나타난다.

특히 급한 동티가 생겼을 때는 심방을 청해다가 빌 사이도 없이 죽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특히 조왕, 칠성, 변소 등의 동티는 대개 눈아픔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특별한 주의를 하여 이사나 집수리 따위는 반드시 이 신구간을 찾게 된다. 이것은 평상시에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으려 매우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이다. ……

이러한 신구간은 해마다 예외없이 찾아오게 마련이고, 이 기간에는 옥황상제의 임명을 받아 내려온 여러 신격(神格)들의 임기가 다 끝나게 되어 구관(舊官)은 옥황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다시 신관(新官)이 서로 부임해 내려오는 이른바 신관·구관이 교대되는 기간인 것이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지상의 모든 신들이 일년간의 인간 세계에 있었던 온갖 일들을 옥황상제님 앞으로 총결산을 함과 아울러 그 일의 성과에 따라 새로운 임지로 발령도 받게 된다는 것인데, 그 기간이 꼭 일주일간으로 보통 대한 후 5일에서 입춘 전 3일이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제주도민은 그렇게 여러 신들이 옥황상제에게로 오가고, 또 그 신들이 많은 일거리들을 처리하노라고 인간 세계를 보살필 겨를이 없는 분명한 틈을 타서 그러한 신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쓰러져 가는 가옥을 다시 고쳐 세우고 또한 새로운 살림살이를 꾸민 것이다.³⁾

이처럼 평소에 신에게 구속되어 살던 제주사람들에게 신구간은 지상에 신이 없는 기간으로, 신이 두려워 할 수 없던 일들을 할 수 있는 해방의 시간이요, 자유의 시간이요, 인간의 시간인 것이었다.

신구간 풍속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제주도에서만 행해지는 독특한 풍속이다. 그러나 그 유래에 대해서는 민속연구자들 간에도 견해 차이가 있다.⁴⁾ 진성기 선생은 제주도의 신구간 풍속을 제주사람들

3) 진성기, 『제주도민속』(제주민속연구소, 1997[9판]), pp.383-388. 『제주도지(하)』(제주도, 1982), pp.926-928.

이 인력으로 극복하기 힘든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오는 과정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고유문화로 본다. 반면에 현용준 선생은 제주도 심방[巫覡]들이 구송하는 무가(巫歌) 본풀이 어디에도 대한과 입춘 사이에 신들이 하늘로 올라가거나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신구간 풍속은 '세관교승(歲官交承)'의 내용이 제주에 전해지면서 생겨난 외래문화라 본다. 그리고 오문복 선생은 조선말기(1877~1881)에 백낙연 목사가 제주 성내(城內)의 도로를 확장할 때 '세관교승'의 내용을 가지고 백성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우연하게 신구간 풍속이 생겨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제주사람들이 '신구간'을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 사이로 규정하게 된 데는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2일은 곧 신세관(新歲官)과 구세관(舊歲官)이 교승하는 때이다. 입춘일을 범하지 말고, 반드시 황도일(黃道日)과 흑도일(黑道日)을 가려서, 먼저 조상의 신주에게 길(吉)한 방향으로 피해서 나가도록 청해야 한다. 이때에는 산운(山運)에도 거리낌이 없어 길흉살에 이르기까지 극복되므로, 임의대로 가택을 짓고 장사를 지내도 불리함이 없다."⁵⁾는 '세관교승'과 무관하지 않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한다.

하지만 '세관교승'의 내용이 들어 있는 성여훈의 『천기대요』⁶⁾와 홍만

4) 윤용택, 「제주도 '신구간' 풍속의 유래에 대한 고찰」, 『탐라문화』 28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6).

5) 大寒後五日 立春前二日 乃新舊歲官交令之際 不犯立春日 須擇黃黑道 先請祖先神主出避吉方 不忌山運 被克及諸般吉凶殺 起造葬埋 任意爲之 無不利 成여훈, 『新增參贊秘傳 天機大要』[원본 영인판](대지문화사, 1981), pp.131-132. 歲官交承(不犯立春日 須擇黃黑道)大寒後五日 立春前二日 乃新舊歲官交令之際 其間善擇日時 不忌山運 被克及諸般吉凶殺 起造葬埋 任意爲之 無不利 洪만선, 『山林經濟』[한국학기본총서 제8집, 오한근 소장본 영인본](경인문화사, 1973), pp.639-640.

선의 『산림경제』⁷⁾가 조선후기에 전국적으로 널리 읽혔던 점으로 보아, ‘세관교승’의 내용이 제주도보다는 오히려 육지부에 더 잘 알려졌을 터인데, 신구간 풍속이 유독 제주도에만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논자는 앞선 연구에서 신구간 풍속의 연원을 ‘세관교승’의 유입과 더불어 열악한 자연환경에서 생겨난 무속신앙과 고온다습한 기후에서 찾아보았다.⁸⁾ 제주사람들은 수재(水災), 풍재(風災), 한재(旱災) 등의 자연재해가 이어지는 열악한 자연환경과 무서운 질병을 유발하는 고온다습한 기후 때문에 무속 신앙에 의지해서 살아 왔다. 제주도의 무속신앙에서는 잡다한 신격(神格)이나 귀령(鬼靈)들이 숭배되고, 심방[巫覡]들은 신의 수효를 말할 때 보통 ‘1만8천신’이라고 한다. 이처럼 제주사람들은 신들에게 예속되어 뒤탈이 두려워 마음 놓고 일을 못하였다. 그런

6) 『천기대요』는 역학(易學)과 오행설(五行說)의 원리에 바탕을 두어 인간생활의 길흉화복을 가리는 방법을 기술한 도참서로 조선시대에는 조정에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일용편람으로 널리 애용되었다. 『천기대요』는 명나라 임소주(林素召)가 편찬하였고, 인조14년(1636) 성여훈(1583-1662)이 도입하여 간행하였다가 병자호란 뒤인 효종4년(1653)에 시헌력(時憲曆)에 따라 개편되었다. 이 책을 원전으로 하여 음양과 출신인 지백원(池百源)이 영조 13년(1737년)에 증보본(增補本)을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그의 손자 지일빈(池日賓)이 영조39년(1763년)에 신증본(新增本)을 간행하였다. 그리고 관상감에서 고종 39년(1902년)에 지송욱(池松旭)의 증보신본(增補新本)을 발간하였다. 대한역법연구소 역편, 『詳譯 新增參贊秘傳 天機大要』(대지문화사, 2004), p.1.

7) 『산림경제』는 조선 후기 실학자 홍만선(洪萬選:1643(또는 1664)~1715)이 농업과 일상생활에 관한 광범위한 사항을 기술한 농촌생활에 필요한 가정보감(家庭寶鑑)이었다. 『산림경제』는 간본(刊本) 없이 필사본으로만 전해 오다가 1766년(영조 42) 유중림(柳重臨)에 의하여 16권 12책으로 증보되었다. 신승운, 『산림경제 해제』, 민족문화추진회 역, 『산림경제』I(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6), pp.1-15 및 홍이섭, 『홍만선의 산림경제에 대하여』, 『山林經濟』[한국학기본총서제8집, 吳漢根 소장본 영인본](경인문화사, 1973), pp.1-3 참조.

8) 윤용택, 『제주도 ‘신구간’ 풍속에 대한 기후 환경적 이해』, 『탐라문화』 29호(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2006).

제주사람들에게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2일에는 신구세관(新舊歲官)이 교체되는 기간이어서 신이 없다는 '세관교승'은 하나의 복음(福音)처럼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Ⅲ. 신구간 풍속의 기후 환경적 의미

자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거기에 순응해야 하는 농경사회에서 계절(절)의 순환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했다. 그러나 달의 운동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음력으로는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음력을 사용하는 농경사회에서는 계절의 변화를 읽어내기 위한 농사력이 필요했다. 이른바 24절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24절기는 태양이 움직이는 길인 황도(黃道)를 따라 춘분점을 기준으로 15° 간격으로 24점을 정하여 태양이 각 점을 지나는 시기를 말한다. 각 절기의 간격은 대체로 15일이며 24절기의 양력날짜는 고정되어 있으며, 24절기의 명칭은 중국 주(周)나라 때 화북(華北)지방의 기후를 반영한 것이다.⁹⁾

한편, 신구간이 24절기의 마지막 절기인 '대한'과 첫 절기인 '입춘' 사이에 있는 것으로 보아 농경사회의 세시풍속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24절기는 우리나라에서 농사력으로 사용되긴 했어도 우리의 기후와 꼭 들어맞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24절기에서 말하는 절기상의 계절과 우리나라의 자연계절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24절기의 일평균기온을 비교해보면 잘 알 수 있다.

9) 한국천문대, 『만세력』(명문당, 2004), pp.12-13.

〈표 1〉 24절기에서 본 일평균기온(1971-2000)

사계	24절기	황경(°)	양력	일평균기온(℃)	
				서울	제주
봄	입춘(立春)	315	2/4,5	-1.6	5.3
	우수(雨水)	330	2/19,20	0.7	6.3
	경칩(驚蟄)	345	3/5,6	3.1	8.2
	춘분(春分)	0	3/21,22	6.7	9.6
	청명(淸明)	15	4/5,6	10.4	12.5
	곡우(穀雨)	30	4/20,21	14.0	14.4
여름	입하(立夏)	45	5/6,7	15.8	17.1
	소만(小滿)	60	5/21,22	18.5	18.1
	망종(芒種)	75	6/6,7	21.2	20.3
	하지(夏至)	90	6/21,22	22.7	21.4
	소서(小暑)	105	7/7,8	24.1	24.6
	대서(大暑)	120	7/23,24	26.1	26.8
가을	입추(立秋)	135	8/8,9	26.1	27.3
	처서(處暑)	150	8/23,24	24.4	25.7
	백로(白露)	165	9/8,9	22.5	23.8
	추분(秋分)	180	9/23,24	19.6	21.5
	한로(寒露)	195	10/8,9	16.6	19.0
	상강(霜降)	210	10/23,24	12.2	16.5
겨울	입동(立冬)	225	11/7,8	10.0	14.6
	소설(小雪)	240	11/22,23	4.8	11.3
	대설(大雪)	255	12/7,8	2.2	8.9
	동지(冬至)	270	12/22,23	-0.5	7.3
	소한(小寒)	285	1/6,7	-1.5	6.8
	대한(大寒)	300	1/20,21	-3.2	5.1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기온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자연계절, 즉 기상학적 계절을 분류한다.¹⁰⁾

〈표 2〉 기온을 중심으로 본 기상학적 계절(자연계절) 기준

계절	일평균기온	일 최저기온	일 최고기온
초겨울(初冬) · 늦겨울(晩冬)	5℃이하	0℃이하	
한겨울(嚴冬)	0℃이하	-5℃이하	
초봄(早春) · 늦가을(晩秋)	5℃~10℃	0℃이상	
봄(春) · 가을(秋)	10℃~15℃	5℃이상	
늦봄(晩春) · 초가을(初秋)	15℃~20℃	10℃이상	
초여름(初夏) · 늦여름(晩夏)	20℃~25℃		25℃이상
한여름(盛夏)	25℃이상		30℃이상

그리고 일평균기온은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상학적 계절(자연계절)은 지역마다 다르다. 다시 말해서 절기상의 사계절은 각각 입춘(立春), 입하(立夏), 입추(立秋), 입동(立冬)에 시작되지만, 일평균기온을 기준으로 하는 기상학적 사계절의 시작일은 서울과 제주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표 3〉 서울과 제주에서의 기상학적 사계절의 시작일(1971-2000)

사계 지역	봄 (5℃ 이상)	여름 (20℃ 이상)	가을 (20℃ 이하)	겨울 (5℃ 이하)
서울	3/13	6/4	9/20	11/21
제주	2/4	6/4	10/4	1/27

따라서 절기상의 계절과 기상학적 계절(자연계절)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¹¹⁾

10) 김연옥, 개정『기후학개론』(정익사, 1999), p.73.

11) 윤용택, 「제주도 '신구간' 풍속에 대한 기후환경적 이해」, 『탐라문화』 29호(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2006), p.252.

(표 4) 절기상의 사계와 기상학적 사계절의 차이(1971-2000)

월(양력)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준												
절기 사계	冬	春			夏			秋			冬	
기상 사계	서울	冬		春		夏			秋		冬	
	제주	秋	冬	春			夏			秋		

서울을 중심으로 볼 때 절기상 봄의 시작(입춘)과 기상학적 봄의 시작은 일치하지 않는다. (절기상으로는) 봄은 왔지만 (기상학적으로는) 봄이 아니라는 것(春來不似春)이다. 그리고 서울의 기상학적 봄은 절기상으로 거의 춘분에 이르러야 시작되고, 가을은 거의 추분이 되어야 시작된다.

'입춘(立春)'을 문자 그대로 봄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입춘일(2/4,5)에 평균기온이 5℃ 이상이 되어 기상학적 봄이 시작될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제주도가 유일하다. 그런 점에서 제주도에서 신구간은 제주도의 기후적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기간이다. 대체로 신구간(1월 25일~2월 2일)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서 연중 가장 추운 시기이다.¹²⁾ 특히 제주에서는 신구간에 일평균기온이 4.7℃나 되어 눈발이 날리고 5% 내외의 바람까지 불어 체감온도가 상당히 내려간다. 그런 점에서 신구간은 제주에서의 기상학적 겨울에 해당한다고 볼 수

12) 지난 80년간(1904~1984)까지 기상자료를 놓고 볼 때¹⁾ 연중 가장 추운 날은 서울(-5.5℃)과 제주(4.0℃) 모두 1월 16일이었고, 지난 30년간(1971~2000)의 기상자료를 놓고 볼 때 가장 추운 날은 서울의 경우 1월30일(-3.7℃), 제주의 경우 2월2일(4.3℃)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기후도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기후편람』(중앙기상대, 1985), p.371 및 p.373 참조

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입춘을 기점으로 다시 5℃를 넘어서기 때문에 신구간은 묵은철이 끝나고 새철이 시작되는 과도기이다.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2일 사이는 신구세관이 교체하는 때(大寒後五日立春前二日 乃新舊歲官交令之際)”라는 ‘세관교승’은 신구간을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까지”로 규정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세관교승’이 실려 있는 『천기대요』와 『산림경제』 등이 조선후기 이후로 전국에서 널리 읽혔는데도 육지부에는 신구간이라는 개념조차 없는 이유는, 육지부에서는 그 기간이 기상학적으로는 엄동이어서 묵은철을 정리하고 새철을 준비하는 기간으로는 부적절하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제주도에서는 신구간이 가장 추운 시기이지만 묵은철에서 새철로 넘어가는 과도기이고, ‘입춘(立春)’에 기상학적 봄이 시작되어 문자 그대로 ‘새철 드는 날’이 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사람들은 ‘세관교승’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신구간 풍속으로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이다.

제주도에서는 연중 온난해서 세균 감염으로 인한 질병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주사람들은 평소엔 변소개축이나 집수리 등과 같이 세균 감염의 우려가 있는 일들을 삼갔다. 반면에 가장 추운 시기인 신구간은 제주사람들에게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기간이었으면서 농한기였기 때문에 변소개축, 집수리 등과 같은 농사 외적인 일은 이 기간을 이용했던 것이다.

기후적 관점에서 볼 때, 제주도에서 신구간은 문자 그대로 묵은철에서 새철로 넘어가는 과도기여서 새철을 준비하는 기간, 즉 새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는 안성맞춤이었다.

IV. 신구간 풍속의 축제화 가능성

모든 것을 신의 조화로 믿으면서 신에 구속되어 살던 옛 제주사람들에게 ‘세관교승’이 알려진 것은 일대 사건이었다. 일 년 내내 신에게 예속되어 살던 제주사람들에게 ‘세관교승’은 일 년 중 단 일 주일만이라도 신으로부터 풀려나는 계기가 되었다. 그들은 ‘세관교승’을 통해서 신구간에는 신들이 지난 한 해의 일들을 옥황상제에게 보고하고 임무교대를 위해 하늘로 올라가서 지상에는 신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는 신이 두려워서 못하던 일들을 해도 괜찮다고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속신 덕분에 제주사람들은 가장 추운 시기인 신구간에 뒤탈이 날지도 모르는 일들을 함으로써 후환을 방지하였다.

무속신앙에 젖어 살아왔던 제주사람들에게 신구간은 신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의 시간이었다. 일 년 내내 신의 간섭을 받으면서 살던 제주사람들은 신구간이라는 일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만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었다. 즉 지상에 신이 없는 신구간은 늘 신의 규제를 받는 일상에서 벗어나서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일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기간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제주도의 기후를 놓고 볼 때, 신구간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기간이었고, 그동안 미뤄뒀던 집안일을 바빠 마무리해야 하는 새철(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더 이상 신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현대사회는 더 이상 농경사회도 아니고, 농한기도 따로 없으며, 방역과 위생이 좋아져서 더 이상 질병감염을 두려워 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농경사회의 산물인 신구간 풍속이 산업사회에도 지속되려면 상당한 의미 변형이 있어야 한다.

오늘날 신 대신에 수많은 규범들에 구속되어 살아가는 우리는 가끔

규범으로부터의 이탈을 꿈꾼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 덕분에 일상생활에서 계절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살아가지만, 일 년에 한번쯤은 새로운 출발을 하게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대인들의 요구에 맞게 제주도의 신구간 풍속을 문화축제 내지는 관광축제로 새롭게 자리매김해볼 필요가 있다.

‘축제(祝祭, Festival)’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한양명 선생은 그의 “축제와 놀이”에서 여러 학자들의 축제에 대한 정의를 종합하여 공동체축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¹³⁾

- 1) 일상과 일정하게 분리된 시공간에서 행해지는 집단적 활동
- 2)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일상과 순환적인 관계에서 시간을 질서와 체계화할 수 있는 활동
- 3)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가지며 반복성과 지속성을 갖는 활동
- 4) 제사, 놀이, 예술 등의 다양한 활동을 포괄하며, 주체가 여기에 몰입하여 흐름을 체험함으로써 자기 존재의 의의를 자각하고 고양시킬 수 있는 활동
- 5) 일상적 차별의 약화와 무화를 통해서 참여자들의 연대를 촉진하고 집단에 대한 귀속감을 강화할 수 있는 활동
- 6) 주체적, 적극적 참여를 통해 일상의 삶을 갱신할 수 있는 활동

위의 정의를 통해서 본다면, 축제의 조건은 비일상성, 주체의 삶에 리듬을 부여하는 주기성, 형식과 내용의 지속성, 주체적 몰입을 통한 존재의 부양성, 대동성, 일상의 갱신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양명 선생은 오늘날 한국의 축제에서 그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공동체축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⁴⁾ 그의 이러한 주장은 우리나라에

13) 한양명, 「축제와 놀이」, 『한국축제의 이론과 현장』, (월인, 2000), p.103.

축제다운 축제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신구간에는 지상에 신이 없다는 속신에서 비롯된 신구간 풍속은 규범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음을 내포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신구간 풍속을 의미 변형시키면 ‘신구간 축제’라는 새로운 공동체 축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표 5〉 축제의 조건에 비춰본 신구간 풍속과 축제의 차이

조건	신구간 풍속	신구간 축제
비일상성	신의 부재로 인한 비일상성 신화적 금기로부터의 이탈	기존질서로부터의 이탈 사회적 금기로부터의 이탈
주기성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까지 (1월 25일부터 2월1일까지)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까지 (1월 25일부터 2월1일까지)
지속성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까지 지속됨	문화산업사회에도 유효함
몰입성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일을 바쁘게 함	기존질서로부터 해방되어 맘껏 즐김
대동성	임대료 폭등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이 커져 대동성이 깨짐	기존질서로부터 이탈하여 계급이나 역할을 바꿔봄으로써 구성원들의 상 호이해를 넓히고 새로운 이상세계를 지향함으로써 대동성이 강화됨
일상의 갱신성	새철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묵은 것을 털어 내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기간

축제적 놀이는 일상생활 및 일과는 다르고 일상을 벗어난 시간이다. 이는 신성(神聖)과 속(俗)의 전도(顛倒)이고, 규칙과 역할의 전도일 수가 있고, 가치에 대한 부정 등의 현상일 수도 있다. 결국 축제적 놀이는 비일상성의 특성을 내포하면서 특히 리미노이드(liminoid)¹⁵⁾한 놀이들

14) 한양명, 「3.1 민속문화제의 역사와 축제성」, 『3.1 민속문화제의 회고와 전망』(3.1 민속문화향상회, 2001), p.8.

15) 여기서 ‘리미노이드(liminoid)’란 용어는 일상생활의 바깥, 일상성에서의 변화, 전도(轉倒), 반구조적, 가면무도적이며, 신분과 서열이 부재하는 민주적, 평형적, 개방

은 일상적 영역으로부터의 이탈 외에 전도의 특성을 지님으로써 정상적인 세계의 규칙과 규제에서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규칙과 규제를 명백하게 부정하거나 제약의 사슬을 끊어버리게 전도시킨다. 또한 그 기간 동안에는 사회적 위계질서가 전도되고, 도덕행위의 관습적 규칙들이 중지되는 것이다.¹⁶⁾

우리는 축제를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놀고 즐기며 이탈을 경험한다. 그리고 사회가 덮어씌운 굴레를 벗어나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발산하고 난 후 그 집단적 신명의 경험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생기를 불어넣는 활력소가 될 수 있다.¹⁷⁾ 축제의 장은 숨 막히는 일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방구요, 축제기간은 해방의 시간이다

옛 제주사람들은 평소에는 신에게 구속되어 여러 가지 금기(禁忌) 속에 살다가 신구간에 그 금기들을 깨고 평소에 신이 두려워 못하던 일들을 하였다. 그런 점에서 신구간은 비밀상성의 측면에서 두드러진다. 오늘날 신화적 금기는 사라졌지만, 또 다른 사회적 금기 속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신구간이 신화적 금기가 깨지는 기간이라면, 신구간을 사회적 금기들을 깨는 축제의 기간으로 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의미 변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신구간은 주기성에서도 상당한 이점을 지닌다. 우리나라 민속 축제들은 음력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테면 정월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로 정해져 있지만,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양력에 비추어 본다면 빠른 경우는 2월 초순에서 늦은 경우는 3월 초순에 이르기까지 들쭉

적인 조건을 가리킨다. 이광진, 「민속과 축제의 관광적 이해」, (민속원, 2004), p.24에서 재인용.

16) 이광진, 「민속과 축제의 관광적 이해」(민속원, 2004), p.24.

17) 조미영, 「축제의 시작에서 끝까지」, 『문화와 현실』 제8호(제주문화포럼, 2004), p.10.

날썩하다. 그리고 다른 축제들도 날짜를 지정하기보다는 ~월 초순 또는 하순 등으로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주기성의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다. 반면에 신구간은 대한 후 5일에서 입춘 전 3일(양력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로 언제나 고정되어 있다. 그리고 축제기간이 8일간이나 되기 때문에 축제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기간은 전국 어디에서도 축제가 없으며, 관광 비수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구간을 축제의 기간으로 삼는다면 제주에서만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축제가 될 수 있어서 관광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리고 신구간 풍속은 언제부터 행해졌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개명 천지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지속성의 측면에서 뛰어나다. 따라서 ‘신구간’의 개념은 단순한 농경사회에서만 아니라 산업사회에서도 유효하며, 오늘날에도 적절하게 의미 변형을 한다면 신구간의 축제화가 충분히 가능하다.

한편, 신구간 축제는 몰입성과 대동성의 측면에서도 뛰어나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신구간 축제는 기존질서로부터 해방되어 그동안 억누르던 여러 가지 금기로부터 벗어나 본능적 욕구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주체적 참여가 가능하다. 그리고 신구간 축제 기간 동안에 일상적 차별을 약화시키거나 없앴으로서 참여자들의 연대를 촉진하고, 계급이나 역할을 바꿔봄으로서 구성원들 상호이해를 넓히고 새로운 이상세계를 지향함으로써 집단에 대한 귀속감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고양할 수 있다.

농경사회의 제주사람들은 신구간에 목은철에 못 다한 일을 마무리하고 새철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따라서 문화산업사회의 우리들은 신구간 축제를 통해 정신적으로는 억눌렀던 금기로부터 벗어나 본능적 욕구를 발산함으로써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날려 보내고, 물

질적으로는 집안과 매장에서 불필요하게 쌓아두었던 물품들을 필요한 이들에게 제공하여 문자 그대로 묵은 것을 털어내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신구간 축제가 현실화 되려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V. 신구간 축제의 의의와 현실화 방안

만일 신구간 축제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새롭게 창조된 지역축제가 될 것이다. 장주근 선생은 지역축제의 현대적 의의와 기능을 원초 제의 성의 보존, 전통문화의 보존, 지역민의 일체감, 경제적 의의, 관광적 의의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¹⁸⁾ 여기서는 신구간 축제가 그러한 축제의 기능에 얼마나 부합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원초적 제의성과 전통문화의 보존

애초에 축제는 성스러운 종교적 제의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축제는 축(祝)과 제(祭)가 포괄된 문화현상이다.¹⁹⁾ 그러나 오늘날에는 축제에서 유희성을 강하게 지니는 반면에 종교적 신성성이 거의 퇴색되고 있다.

신구간에는 모든 신들이 지난 한 해의 일들을 옥황상제에게 보고하고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고 아직 새로운 신들이 내려오지 않아 지상에는 신이 없다. 따라서 신구간 축제에는 제의(祭儀)의 대상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신이 없다고 축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18) 김명자 외, 『한국의 지역축제』(문화체육부, 1996) p.26에서 재인용.

19) 위의 책, p.15.

서양에도 신격(神格)과 귀령(鬼靈)이 없는 날에 민속축제를 행해지는 사례가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국의 축제 ‘할로윈(Halloween)’ 전날은 과거 켈트족의 새해 첫날로, 영국에서는 해마다 10월 31일이 되면 할로윈 풍습을 지킨다. 스코틀랜드 미신에 따르면, 이 날은 마녀나 악마, 요정, 기타 땅과 공기의 정령들이 매년 휴가를 갖는 때이다. 바로 이 날에 모든 아이들이 가장(假裝)을 하고 몇 명씩 떼를 지어 봉투를 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달콤한 사탕이나 과자를 달라고 한다. 이날은 어디를 가나 대문 앞에서 속을 파낸 호박의 흉측한 물골을 볼 수 있는데, 소름끼치는 호박얼굴들은 안에 넣은 촛불로 빛이 환하다.²⁰⁾

그리고 신에 대한 제의(祭儀)가 축제의 필수조건이라면, 신구간 축제에서도 제의를 도입할 수 있다. 이를테면 입춘에 행하는 ‘탐라국입춘굿놀이’가 신구간이 끝나 지상으로 내려와 새해의 일들을 시작하려는 1만 8천신들을 청하여 대접하기 위한 풍농굿이라면,²¹⁾ 1만8천신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신구간 전날(대한 후 4일)에 일 년 동안 잘 보살펴주어 고맙다는 송신제(送神祭)를 지낼 수 있다²²⁾. 그리고 신구간 전날에 제의(祭儀)를 지내는 대신에 1만 8천신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1만8천명이 참가한 가장행렬을 통해 연출할 수도 있고, 그와 더불어 신들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신구간 다음날(입춘 전 2일)에는 1만8천신들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장면을 연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들은 예전부터 있었던 의례가 아니고 새롭게 창조된 것

20) 올리히 쿤 하인 편, 『유럽의 축제』, 신회섭 옮김(컬쳐라인, 2001), p.295.

21) 문무병, 『탐라국입춘굿놀이』(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0), p.2.

22) 중국의 민간에서는 집안의 평안과 목록을 관장하는 조왕신(竈王神)이 옥황상제에게 한 집안의 선악을 보고하러 하늘로 올라가는 선달 24일과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는 정월 초 4일에 제사(竈祭)를 지낸다. 장정룡, 『韓中 歲時風俗 및 歌謠研究』(집문당, 1988), p.106, p.226

들이기 때문에 신구간 축제가 원초적 제의성과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신구간 축제를 오래 전부터(길게는 탐라국 시대부터 짧게는 조선후기부터) 행해지던 '입춘굿'이 80년만인 1999년부터 복원되어 행해지고 있는 '탐라국입춘굿놀이'와 연계시킨다면 어느 정도 원초적 제의성과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이 신구간 축제와 입춘굿을 연계해볼 수 있다.

신구간 전날(1월 24일) 1만 8천신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퍼레이드를 펼치면서 송신제(送神祭)를 올린다.

신구간(1월 25일부터 2월 1일)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발산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대동성과 지역경제의 생산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한다(다음 2절과 3절 참조).

신구간 다음날(2월 2일) 1만 8천 신들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퍼레이드를 펼친다.

입춘 전날(2월 3일) 입춘굿을 위한 준비를 한다.

입춘(2월 4일) 풍요를 기원하는 입춘굿놀이, 즉 영신제(迎神祭)와 풍농굿을 펼치면서 새철을 맞이한다.

우리는 신구간 축제 기간에 일상으로부터 일탈을 통해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을 토해내고, 입춘굿놀이를 통해 다시 경건함을 일깨움으로

써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재충전한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2. 공동체의식 함양과 관광 활성화

신구간은 우리를 구속하던 신이 사라진 해방의 시간요, 자유의 시간 이요, 인간의 시간이다. 따라서 신구간 축제의 뜻은 신구간에 사회가 덮 어썩은 온갖 굴레로부터 벗어나 인간의 본능을 맘껏 발산하고 집단적 신명을 경험해보는 데 있다.

축제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축제 때 일상생활의 궤도에서 벗어나 지나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전통적인 도덕성이나 금기 시해 온 행동들도 구속력이 완화되고 축제 참가자들도 각각 기묘한 복잡과 행동들을 보여줌으로써 잠시나마 과거나 현재의 인습적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과정에서 인간생활의 고뇌와 번민, 절망 등을 모두 극복하고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성취되고 또 성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축하하기도 한다.²³⁾ 그런 점에서 축제의 시공간은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의 시공간이다. 신구간 축제는 제주도라는 제한된 공간과 신구간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벌어지는 축제이다. 그리고 관광객과 도민들은 신구간이 축제가 끝나는 순간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일상으로부터의 일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일탈 중에 가장 손쉬운 것은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다. 우리는 사용하는 언어와 도구, 그리고 사회적 역할 등에서 나름대로의 고정관념을 안고 살아간다. 그러한 고정관념은 사회질서의 원천이지만, 우리의 삶의 굴레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그러한 잠시나마 고정관념을 깨볼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23) 이광진, 「민속과 축제의 관광적 해석」(민속원, 2004), p.13.

세계에 대한 이해의 지평이 넓어지고, 현재보다 더 나은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며,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보다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성, 계층, 세대 간에 역할과 위계가 뚜렷하다.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신구간 축제 기간에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장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신구간 축제 때에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부모와 자식, 형과 아우, 시어머니와 며느리, 선생과 학생, 상사와 부하, 사용자와 고용자, 선배와 후배, 기성세대와 신세대 등의 역할을 바꿔보는 프로그램들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사회적 역할을 바꾸거나 뒤집어 보는 것은 사회적 질서와 금기를 깨는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사회적 연대성을 확충함으로써 성, 계층, 세대 간에 갈등을 해소하는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한편, 제주도는 인구비례로 자동차가 전국에서 제일 많다. 오늘날 제주도에 그만큼 자동차가 넘쳐나고 있고, 제주사람들은 자동차에 길들여져 있고, 자동차에 예속되어 살아간다. 따라서 신구간 동안만이라도 대도로를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활발하게 함으로써 거리의 주인공이 차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구간에는 승용차 운행을 자제하고, 특히 신구간 축제가 열리는 지역은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자동차에 지배되던 일상적인 삶에서 벗어나보자는 것이다.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자동차가 우리의 삶을 얼마만큼 구속하고 지배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신구간 축제 기간에는 도시의 주인이 차가 아니라 인간임을 선포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하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3. 경제 활성화와 환경보전

제주도에서는 생명산업인 감귤이 대부분 생산량이 많아 가격 조절이 어렵고, 특히 비상품 감귤을 처리하는 게 큰 골칫거리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제주의 감귤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신구간 축제에 비상품 감귤을 소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비상품 감귤과 상한 감귤로 전투를 벌이는 ‘감귤전투’이다 (카니발 때 이탈리아의 소도시 이브레아(Ivrea)에서 벌어지는 오렌지전투는 유명하다).²⁴⁾ 물론 시기적으로 볼 때 신구간에는 감귤이 귀한 시기이다. 하지만 이 때쯤이면 저장 중에 상한 감귤들이 상당수 나올 시기이고, 신구간 축제 때 감귤전투에 사용할 비상품 감귤들을 미리부터 확보하여 저장해 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신구간 축제 때 벌어지는 감

24) 이탈리아의 소도시 이브레아(Ivrea)에서는 카니발 때 오렌지 전투가 벌어진다. 카니발이 열리면 이브레아는 유례없는 일대 장관이 펼쳐진다. 오렌지 전투는 참회 목요일 이전 두 번의 일요일에 공식적으로 준비되기 시작하는 데, 이를 동안 여기에 참가하는 팀들이 만나 사령관을 뽑고 전략을 의논한다. 그 다음에는 성대한 축하연이 벌어지고 술도 마신다. 잠두, 돼지고기나 전통적 카니발 음식인 기름진 소시지 등의 음식으로 앞으로 있을 힘든 행사를 위해 체력을 다지는 것이다. 본격적인 축제는 ‘참회 목요일’에 시작된다. 이브레아 시장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장군’이 시청 발코니에 나와 시작 신호를 하면 거창한 역사적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행렬은 저녁 때 이브레아의 가장 큰 장터인 ‘피아차 마조레’에서 끝나고 이어 대규모의 가장 무도회가 열린다. 사육제 토요일에는 카니발의 공주인 ‘방앗간 아가씨(mugnaia)’를 뽑고, 일요일에 오렌지 전투가 시작된다. 발로 뛰는 군단과 마차부대로 구성된 아홉 개 팀이 서로 화려한 유니폼을 입고, 있는 힘을 다해 잘 익은 오렌지를 상대방에게 던진다. 얼굴을 철통같이 가리고 특수 헬멧을 쓴 마차부대원들은 그들에게 쏟아지는 오렌지 산탄을 견뎌내야 한다. 관객이 이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고 이 난리통을 벗어나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중립을 표시하는 빨간 모자를 쓰는 것이다. 오렌지 전투는 화요일까지 계속되는데 카니발의 마지막 날인 화요일 저녁이 되면 땀이땀굴로 휘감은 높은 기둥에 카니발이 끝났다는 표시로 불을 댕긴다. 약 350톤의 오렌지가 소요된 이 전투로 인해 달콤한 오렌지 향이 도시 전체를 진동하고, 남국의 과일로 펼쳐지는 이 도취적인 제전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며칠이 걸린다. 올리히 쿤하인 편, 『유럽의 축제』, 심희섭 옮김(컬처라인, 2001), pp.109-111.

굴전투는 비상품 감골을 소비함으로써 제주지역 경제에 기여할 것이다. 분만 아니라 감골전투에 참여하는 이들은 공격적 본능을 발산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심성을 정화시키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는 멋진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구간은 제주도에서 가장 추운 기간임을 감안해서 신구간축제 때 눈[雪]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고안해 볼 수도 있다. '눈꽃축제'가 예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날씨(기상)의 변수가 커서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러나 1~2일 기간이라는 짧은 기간에 행해지는 단독축제로서 날씨(기상)에 좌우되는 '눈꽃축제'는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다. 하지만, 제주에서 가장 추운 기간인 신구간에, 그것도 장장 10여일 간에 걸쳐 행해지는 신구간 축제의 여러 프로그램들 가운데 하나인 제주의 눈[雪]과 관련된 행사가 있다면 성공확률은 그만큼 높을 것이다.

한편, 1990년대 들어서 신구간에 제주의 도심지역은 쓰레기 대란으로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되면서 이사를 하면서 버릴 물품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쓰레기나 재화나 하는 것은 미리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다. 어떤 물품도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재화가 되지만, 불필요한 사람에게는 쓰레기가 된다. 따라서 아무리 하찮은 물건도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제공되면 귀한 재화가 된다. 쓰레기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해서 귀한 재화로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제주시에서는 몇 해 전부터 신구간에 중고물품들을 무상증여하거나 물물교환할 수 있는 장터를 열고 있다. 이사하면서 버릴 중고가전제품과 가구 등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사전 접수신청을 받고 재사용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교환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대형폐기물쓰레기 배출에 따른 수수료 절감과 쓸만한 물품을 무상으로 교환함으로써

써 재활용 의식 함양에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²⁵⁾ 신구간 축제기간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이러한 교환장터와 나눔장터를 대대적으로 열게 된다면 폐기물이 줄어들게 되어 환경적으로도 좋을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 사이에 공동체의식이 강화될 것이다

오늘날에도 신구간이 되면 이사하는 가정에서 새로운 물품들을 구입하게 되고, 상가에서는 할인 경쟁이 이뤄져서 신구간이 되면 침체됐던 경기도 반짝 살아나는 신구간 특수(特需)가 있게 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신구간이 이사철로서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신구간 특수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따라서 신구간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새롭게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신구간 풍속의 근본 취지는 묵은 것을 털어내고 새로운 것을 준비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각 매장에서는 이러한 신구간 풍속의 취지를 잘 살려 유행이 지난 제품들을 대폭 할인 판매함으로써 신구간을 문자 그대로 재고(在庫) 정리하는 기간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구간 축제 기간에 이를테면 '칠성골 신구간 떨이축제' 등을 열게 된다면 서민들은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고, 상인들의 입장에서도 재고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VI. 맺는말

대체로 지역의 전통문화는 그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환경을 반영한다. 신구간 풍속도 예외는 아니다. 태풍의 길목에 위치한 화산섬 제주도

25) 2007년 신구간에는 중고물품 무상교환장터에 각종 가구와 가전제품 등 420여점의 중고물품이 기증되어 402점이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제주일보 (18825호), 2007년 2월 2일자 p.6 참조

는 늘 풍재(風災), 수재(水災), 한재(旱災)의 위협을 안고 있었고, 연중 온난해서 세균 감염으로 인한 질병의 위협이 많았다. 따라서 제주사람들은 모든 자연현상을 신의 조화로 여겼고, 만물에 신들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신에게 예속되어 살아왔다.

그런 제주사람들에게 대한 후 5일과 입춘 전 2일에는 모든 신이 하늘로 올라가서 지상에 신이 없다는 '세관교승'은 하나의 복음(福音)처럼 받아들여졌고, 평소엔 신이 두려워 못하던 일들을 이 기간에 하게 되었다. 따라서 민속학적 관점에서 볼 때 신구간은 제주사람들이 신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었고, 기후학적으로 볼 때 신구간은 문자 그대로 묵은철에서 새철로 넘어가는 과도기이면서도 가장 추운 시기여서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기간이었다. 따라서 제주사람들은 신구간을 새봄(새철)맞이 준비기간으로 삼아 변소개축, 집수리 등과 같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신구간은 이사철로 굳어져서 임대료 폭등, 쓰레기 대란, 공공기관의 민원폭주 등의 부작용을 낳았고, 관에서는 신구간을 제주도에서 없애야 할 대표적인 악습, 폐습, 미신 등으로 간주하였다. 그런데도 개명천지한 오늘날까지 신구간 풍속은 지속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만 본다면 제주도는 여전히 살아있는 신화의 땅인 셈이다. 그러나 예전에는 신구간이 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던 이삿짐 행렬도 점차 사라지고 있고, 신구간 특수도 점차 실종되고 있다.

문화적 측면에 본다면, 신구간 풍속은 없애야 할 부끄러운 문화유산이 아니라 새롭게 재해석되어야 할 문화적 자산이다. 신화적 세계에 살면서 신이 없는 기간을 설정했다는 것은 대단한 발상이었다. 그것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고 재해석해 본다면 신구간 풍속은 충분히 신구간 축제로 전환이 가능하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사회적 굴레 속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그 굴레의 끝을 따라가 보면 신화적 세계에 닿게 된다. 옛 제주사람들이 신구간에 신화적 세계의 금기를 깨었듯이, 오늘날 우리는 신구간의 축제화를 통해 여러 가지 사회적 금기를 깰 수 있다. 신구간 축제 기간에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그동안 쌓였던 정신적 스트레스를 풀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신구간에는 신들의 고향 제주도가 인간의 세상이 된다. 신들의 고향에서 신구간 축제 기간에 인간적 욕구를 맘껏 발산하는 것은 제주도에 서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기획해낸다면 신구간 축제의 성공 가능성은 높다.

그리고 신구간은 새봄(새철)맞이 준비기간이다. 이 점을 최대한 살려서 신구간 축제 기간 동안에 알뜰장터를 마련하여, 집안 구석에 쌓여 있던 물품들을 털어내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폐기물로 될 수도 있었던 자원들을 재활용하고 지역민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상인들은 창고에 쌓여 있던 유행이 지난 제품들을 매장(賣場)에 내놓아서 대폭 할인 판매하는 떨이축제를 한다면, 재고도 줄이고 경제활성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신구간의 축제화를 통하여 정신적, 물질적 차원에서 묵은 것을 털어내고 활기분하게 새롭게 새봄(새철)을 맞는 것은 신구간 풍속의 본래적 의미와도 부합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명자 외, 『한국의 지역축제』, 문화체육부, 1996.
- 김연옥, 개정『기후학개론』, 정익사, 1999.
- 문무병, 『탐라국입춘굿놀이』, 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0.
- 성여훈, 『新增參贊秘傳 天機大要』[원본 영인판], 대지문화사, 1981.
- 울리히 쿤 하인 편, 『유럽의 축제』, 신회섭 옮김, 켈처라인, 2001.
- 윤용택, 『제주도 '신구간' 풍속의 유래에 대한 고찰』, 『탐라문화』 28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6.
- , 『제주도 '신구간' 풍속에 대한 기후 환경적 이해』, 『탐라문화』 29호,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2006.
- 이광진, 『민속과 축제의 관광적 이해』, 민속원, 2004.
- 장정룡, 『韓中 歲時風俗 및 歌謠研究』, 집문당, 1988.
- 조미영, 『축제의 시작에서 끝까지』, 『문화와 현실』 제8호, 제주문화포럼, 2004.
- 중앙기상대, 『한국기후편람』, 중앙기상대, 1985.
- 진성기, 『新舊間과 民俗信仰』, 『국어국문학』 34, 35합병호, 국어국문학회, 1967.
- , 『제주도민속』, 제주민속연구소, 1997[9판], 『제주도지(하)』, 제주도, 1982.
- 한국천문대, 『만세력』, 명문당, 2004.
- 한양명, 『3.1 민속문화제의 역사와 축제성』, 『3.1 민속문화제의 회고와 전망』, 3.1 민속문화향상회, 2001.
- , 『축제와 놀이』, 『한국축제의 이론과 현장』, 월인, 2000.
- 홍만선, 『山林經濟』[한국학기본총서 제8집, 오한근 소장본 영인본], 경인문화사, 1973.

Abstract

On the Possibility of Festival of *Singugan*

Yoon, Yong-taek*

Jeju has a unique seasonal custom of *Singugan*(新舊間, literally means 'between new and old') that cannot be found in the mainland of Korea. *Singugan* is a period of eight days between the fifth day after *Daehan*(大寒, around January 20) and two days before *Ipchun*(立春, around February 4).

This period(around January 25 to around February 1) is thought to be the time gods are absent on the earth because they finished their duties for the year so as to ascend to Heaven to hear from *Okhwangsanje*(玉皇上帝, the Lord of Heaven) their new year's missions. People, therefore, can repair their house or fence and move during the period without any harms because gods don't meddle in human affairs during the period of *Singugan*.

In the last fifty years the custom of *Singugan* has brought about a sharp rise of rent, a serious problem of refuse, and various civil petitions in many public-service corporations. Therefore the custom of *Singugan* has been regarded as a bad and evil custom which ought to be done away with in the provincial government official world.

But the custom of *Singugan* is not so much a shameful cultural inheritance as the boastworthy one. It is the excellent idea that Jeju Islanders set up the period when 18,000 gods are absent from earth in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Philosophy, Cheju National University

the community of myth. If we should reevaluated the custom of *Singugan* in the modern meaning, we could turn it into the Festival of *Singugan*.

We can go against many social taboos and get rid of mental stress in the Festival of *Singugan*. And if we could make an economical market place which give and take second-hand goods free of charge, we could preserve environment and cooperate the members of community. It is the original meaning of *Singugan* that we get rid of something outdated, mental or material, during some limited period.

Key Words

Singugan, house-moving season, seasonal custom, sightseeing, Festival

교신: 윤용택 690-756 제주시 제주대학로 66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E-mail : sumsaram@cheju.ac.kr 전화 : 010-9977-2178)

최초 투고일 2006. 12. 7

최종 접수일 2007. 1. 19